

인도의 IT인력 정책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인도 IT인력의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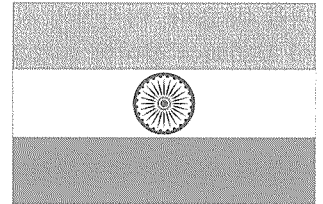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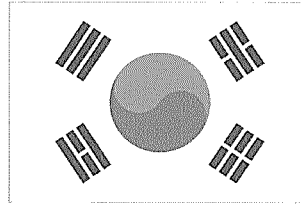
정부의 해외인력도입정책 지원이 실시된 이후의 인도 IT기술 인력의 한국유입은 다른 국가의 고급 기술인력 도입 인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2004년 12월 기준의 출입국관리국의 통계로 주요국가의 E-7비자 입국자 현황인데,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주요 대상국은 인도이며 이는 인도의 IT관련 기술 인력이 정부의 해외 기술인력 도입제도 시행이후의 최대 분야로 조명을 받고 있다. 2002년 인도 기술 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인도 인력에 대해 단순히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 일반 직종의 인력이 도입된 2001년의 실패로 인한 기업의 인력수요가 이를 대체할 러시아 인력으로 급격히 돌아섰던 것에 기인한다. 이후 인도 인력의 활용안과 동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단순 저임 대체인력의 활용으로써 이 지원제도를 접근하기보다는 부족한 기술인력의 도입으로 정착됨에 따라 인도 IT기술 인력의 수요는 이후 2005년에 이어지기까지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4년 보다 일부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현행 세 가지 지원제도: IT Card, Gold Card, Science Card 중 가장 많은 해외 IT인력이 도입되고 있는 IT Card를 중심으로 인도의 IT기술인력 도입현황을 살펴 보면 2002년도에는 총 발급건수 225명중 인도가 44%인 101명이 추천되었으며, 2003년은 240명 중 52%, 2004년도에는 194명 중 51%인 100명이 추천되었다.

인도의 IT인력 활용 모델

인도의 IT인력의 우수성은 결과적으로는 인도 IT산업의 성장으로 증명되고 있다. 인도 인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우수성은 인도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마련하고 지원하는 교육제도를 통하여 훈련되고 양성된 측면도 있지만 인도인의 태생적인 성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 구구단에서 비롯된 인도인들의 수리적 탐구능력이 있다,



혹은 없다는 최근의 한국 언론의 소모적인 논쟁거리와는 별개로 많은 인력풀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을 받은 선발된 인원이 종사하는 IT분야에서의 인력은 평균이상의 수학적 사고와 타고난 품성대로인 토론을 즐겨하고 분석을 글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 이와 함께 인도의 IT기업은 지난 성장의 시간동안 기업의 운영모델을 착실히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아 이를 기업조직에 뿌리를 내린 결과는 오늘날 인도 IT기업의 기술능력척도로 약 50여개 기업이 CMM Level 5 획득이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인도 IT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은 인도 IT인력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의 수준이라는 1차적 자질에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익힌 기술개발 방법론에 입각한 작업정형에서 비롯되는 2차적 능력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인도의 IT산업의 수준은 물론이고 개별적인 인원의 능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가 더해지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게 한 것이다. 이들을 활용한 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기업은 보다 많은 매출을 통하여 기업이윤을 낳고 이 몫이 분배됨으로써 인도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다시 IT산업으로 유입되는 순 작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한국의 언론이나 호사가들이 기본적인 인도인들의 수리적 능력에 대한 왈가왈부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잣대를 들이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동안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적대국가에서도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는 것을 뒤쳐져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와 인도 IT산업 그리고 인도 IT인력 활용에 대한 현실이다.

앞서의 인도 인력의 도입과 기업의 고용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숫자이며 단지 인력도입만이 아니고 인도 현지에서의 활용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늘어난 200여명의 IT기술 인력의 한국입국은 인도의 관심거리도 되지

못한다. 가까운 일본의 인도 IT인력의 활용은 몇 년 전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영어사용권이 아닌 일본의 입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기업의 사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와는 상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여러 면에서 일본의 관습과 생활여건에 불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IT인력의 활용이 당면과제로 대두된 일본은 문제해결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기업으로 하여금 인도 현지에서 인도 IT인력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이 생활과 기업문화를 익히게 하여 이들을 일본기업에 보게 된 것이다. 년 200여명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최종 고용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경제단체의 협조로 인도의 각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수강하는 IT인력의 교육비를 일본에 취업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인력의 활용모델은 크게 나누어,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아웃소싱 방법과 인소싱 방법이 있으며 인력의 고용형태로서는 직접채용과 용역서비스(Body Shopping)가 있다.

- 가)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는 미국기업의 오랜 관행과 같이 인도현지의 IT기업에 시간차이의 활용과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용역에 맡기는 형태이며
- 나) 인소싱(Insourcing)이란 기업자신이 직접 인도에 들어가 인도의 인프라기반에서 인도의 인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IT기업은 아웃소싱의 소극적 방법과 의타적 진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도 현지에 FDI의 형태로나 아니면 ODC/DDF의 방법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IT기업이 인도 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김으로 장차 인도기업이 자신의 경쟁자로 급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없다.

IT협력 전략을 위한 기본이해와 협력 방향

인도의 IT산업의 국가 정책의 중요도는 지금 우리의 IT 부문 정책치중의 정도와 매우 유사하다.

인도는 IT부문에서 경쟁국으로서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



로서 인식하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인도와의 협력 체계를 선점할 경우에는 한국 IT산업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몇몇 주도 기업은 성장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의 일반기업의 기반은 무너져 최근 겪고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와 같은 IT중소기업의 공동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아시아의 협력관계에 있어서의 인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과 국가 전략의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도의 특성은 중국과 달라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제조 산업에 대한 잠식을 가져올 만한 위치가 아니므로 IT 제조 산업에 대한 파트너 국가로서의 정책인식이 필요하다.

아시아 IT허브는 인도를 배제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단계는 관련 인력의 수급에 따라 좌우됨으로 이에 따른 수월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정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IT산업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는 양분적 사고가 아닌 통합되어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한국에서 인도와의 협력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어지고 인도의 풍부하고 훈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하드웨어 제품의 제조생산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으로 날로 확대되어 가는 인도 내수 시장의 규모가 국내 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토양이 될 것이다.

중국경제 확산에 대한 견제와 경쟁은 한국과 이해가 일치할 수 있다.